

추석 연휴 진료·교통·청소 특별대책 마련

보건소, 코로나 대책본부-비상진료 상황실 운영... 연휴 병원·약국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기동반 운영, 감사실 특별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구로구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의료·방역, 청소, 교통, 재난안전, 공직기강 확립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14일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비상체제 유지, 비상진료, 교통질서 확립,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등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대책본부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로역 임시 선별검사소는 18일·20일, 오류동역 임시 선별검사소는 19일·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22일은 구로역, 오류동역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점심시간 오후 12~1시 제외)한다. 구로리공원 임시 선별검사소는 18일·20일·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운영한다.

고대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2개 종합병원은 상시 운영되며 당직의료기관인 병·의원 48개소와 휴일지킴이약국 275개소는 지정된 날짜, 시간에 문을 연다.

지정 일시, 위치 등 자세한 사



전통시장 인파 붐벼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4곳에서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수용품 할인행사와 상품권 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있다. 관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제수용품 최대 20% 할인행사와 경품행사를 펼친다.(사진은 14일 오후 추석 성수품 구입차 남구로시장을 찾은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향은 120 다산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면 병원-약국 명단 표> 귀성·귀경길 교통 편의를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관내 마을버스를 수시로 소독하며 올해는 관내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지 않는다.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 등에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영업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오류시장, 개봉중앙시장, 가리봉시장 주변 도로에서 18

일부터 22일까지 주·정차가 완화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위 1개 차로에서 2시간 내로 주·정차가 가능하고 2열 주차, 도로 모퉁이나 허용 구간 외의 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다.

구로구는 또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상황실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청소한다.

연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휴무에 따라 20~22일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며, 월·수·금 배출 지역은 22일 오후 8시 이후, 일·화·목 배출 지역은 23일부터 배출이 가능하다. <3면에 계속> <채홍길 기자>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구로구 매니페스토 '12년 연속 수상' 대기록

반부패·청렴 권익개선 분야에서 '청렴의 생활화 정책' 최우수상

구로구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2010년 지방선거

부문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래 2011년 청렴 분야 우수, 2012년 일자리공약 분야 최우수, 2013년 공약이행 분야 우수, 2014년 선거공약집 분야 최우수, 2015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2016년 청년문제해소 분야 우수, 2017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8년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최우수, 2020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등 매니페스토 주관 각종 평가에서 올해까지 12년 연속 수상,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인천연원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구로구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성구청장(가운데)과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376개 사례를 응모해 이 중 209개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심사 결과 구로구는 반부패·청렴 권익개선 분야에서 '구로구, 청렴의 생활화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매니페스토 심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해 전 직원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조직 내 다양한 부패방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높은 청렴도를 달성했다는 점을 호평했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도시 구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구로오늘신문 임직원 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추석 명절 복지시설엔 찬바람만 '쌩쌩'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도 全無 '쓸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2년전까지는 경기침체,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불우이웃을 향한 성금도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는 그 방향과 속도를 예상하기조차 힘들다. 만나서 두 눈을 바라보며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일상이 모두 변하고 있다. 끝을 모르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 추석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이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보호 시설 등은 찾아오는 사람이나 후원 물품이 푹 끊겨서 9월 중순에도 '한겨울 같 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복지시설 문 안 찬바람만 쌩쌩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성금은커녕 봉사활동 문의가 전혀 없

네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있어도 한 두통의 전화는 걸려왔는데 올해는 시설을 찾기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고척동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는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부·봉사가 줄어든 현상을 씁쓸해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명절이나 연말을 앞두고 시청, 교육청, 구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관계자들이 정을 나누고자 이곳을 찾아 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왓자지껄 떠들며 청소까지 거들고 돌아가면 건물은 깨끗해지고 식구들 얼굴에는 미소가 폈다. 코로나19는 이런 따스함마저 앗아갔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발걸음마저 거리를 뒤야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시설 관계자는 "택배마저 건물 밖에서 수령하는 분위기에 많은 봉사자가 찾아오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명절의 분주함이 그림기도 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구청의 복지관련 과로 전화를 하면 대면하지 않고 기부물품을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기부금품 60% 이상 줄어

소외계층에게 한 끼 식사를 베풀기도 녹록지 않아졌다. 각 계 봉사단체에서 추석을 맞이하며 송편 나누어 주기 등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 행사를 베풀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기부금이 60%가량 줄어든 실정이다.

자원봉사자 역시 전무해 직원들이 겨우 어르신들을 위한 끼니를 준비할 정도다. 정기적인 기부는 아니더라도 명절을 맞아 후원을 해주던 1회성 후원금도 줄어들어 노인요양원 등 일부 시설은 재정난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추석이면 종종 후원의 손길이 늘었지만, 코로나로 장기간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 올 추석은 후원의 손길이 유난히 뜸하다"고 토로했다.

◇어려울때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

진정한 도움은 마음에서 우어나야 한다. 단순하게 사용하고 남은 물질이 있어서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는 사정에 따라 일시적일 수가 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렵지만 이런 때 일수록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알아 본다.

구로 관내에는 고척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에덴장애인복지관(전화 2611-1711)과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전화 830-6500)이 있다. 공동 생활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보호 시설 등은 찾아오는 사람이나 후원 물품이 푹 끊겨서 9월 중순에도 '한겨울 같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사진은 사회복지시설 브니엘의 집)

시설'에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관내에는 창신모자원(2612-7142) 평화모자원(2614-4303) 있다.

◇'2021년 따뜻한겨울나기' 구로구 목표액 248% 달성

구로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모금 운동인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로 구역대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다.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매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구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졌고 그 결

과 성금 5억 4035만원과 성품 17억 2440만원 등 총 22억 6475만원을 모금했다"면서 "코로나19로 성금 모금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목표액을 9억1000만원 초과하면서 248%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많은 복지시설에 기본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후원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힘든 명절을 보낼 이웃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임마뉴엘구로공동체(전화02-765-3831)등 9곳이 있다.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주어 재활을 하는 시설은 에덴하우스(031-946-7033) 구로구 장애인보호작업장(2689-8791), 해나무일터(070-4423-6147) 늘푸름보호작업장(374-6091) 블루나래(867-9766)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868-8295)가 있다. 아동양육시설로는 오류마을(2612-6534)과 에델마을(2688-6109)이 있다. 미혼모시설 퇴소자 증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모자가족복지

추석 연휴 진료·교통·청소 특별대책 마련

〈1면에서 계속〉
구로구는 이외에도 ▲도로시설물,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화재, 호우, 태풍 대비 비상대책 ▲추석 성수품 물가관리, 전통시장·대형마트 원산지 표시 단속 ▲저소득 취약·소외계층 지원 ▲감사실 특별감찰로 22일까지 구 분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로문

화재단 등 근무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금품·향음주운전,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만반의 준비로 구민들이 사건·사고 없는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관내 전통시장 '추석맞이 이벤트' 펼쳐

남구로·구로·가리봉·고척근린시장 등 4곳서 제수용품 등 할인·경품행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남구로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제수용품 할인 및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로시장은 22일까지 농수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할인 판매하고 17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17일 오후 2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경품추첨도 진행된다.

구로시장에서는 19일까지 축산물, 야채 등을 10% 할인 판매하고, 16일까지 구매금액 3만원 이상은 5000원, 5만원 이상은 1만원, 10만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고객에게 지급한다.

고척근린시장은 15일까지 제수용품, 과일 등을 할인 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남구로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고척근린시장의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

물품구매 시 장바구니, 라면 등 경품을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한다.

가리봉시장은 22일까지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등을 10~20% 할인 판매한다.

구로구는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구로·구로·가

리봉·고척근린·고척골목·오류·개봉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7곳에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인제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구로4)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인제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이 바라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한·중다문화봉사회 '조용하고 쓸쓸한 추석맞이' 행사

전엔 한·중동포 2000여명 초청, 식사대접·장학금 등 전달 올해는 코로나로 축소 '사랑의 이웃돕기 어르신 부침개 행사'

한·중다문화갈꿈이총연합회 가족들의 올 추석은 쓸쓸한 추석맞이가 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구로4동 바르게살기운동 김경진 회장이 사비를 털어 지난 9월7일 구로2, 3, 4동 극동·대웅·은빛·럭키·다문화경로당, 구로동 독거어르신, 동포장애인 등 노인분들 255명에게 '사랑의 이웃돕기 어르신 부침개' 행사를 개최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또한 한·중다문화봉사회(회장 김영희)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으로 사랑의 김치를 담가 열무, 김치 등 2kg 300가정에 각각 전달

하기도 했다. 전에는 한·중다문화봉사회에서 추석 고유 명절을 맞아 구로4동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 매년 연례 행사로 한·중다문화 동포들과 구로지역 주민 2천여명을 초청 '한마음 한뿌리 어울림 큰마당 민속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이행사는 각급 기관장과 구로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으며, 동포, 주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 노래자랑, 초대 가수 공연, 백두산악단 연주, 시낭송, 대합창 등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2000여명에게 식사와 함께

장학금 전달, 독거어르신 10명에 생활자금과,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전달,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과 수고한 회원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거행 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동포들에게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김영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어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 어렵고 힘들지만 동포들이 실시 일반 도와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4동 바르게살기운동 김경진 회장이 사비를 털어 최근 구로2, 3, 4동 독거어르신, 동포장애인 등 255명에게 '사랑의 이웃돕기 어르신 부침개'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18년 9월11일 추석을 앞두고 구로4동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 열린 한·중다문화봉사회 주최 '한마음 한뿌리 어울림 큰마당' 축제.

유진-유선 쌍둥이자매 학생 '사회봉사대상' 수상 구로오늘신문-서울오늘신문 공동 제정 한·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 김해군 씨도

중다문화갈꿈이 총연합회 김해군 회원도 2021년도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유권 기자〉



쌍둥이 자매인 인도 방가로르 국제학교 12학년 유진-유선 학생이 구로오늘신문과 서울오늘신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1년도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가운데는 함께 수상한 김해군씨.

쌍둥이 자매인 인도 방가로르 국제학교 12학년 유진-유선(19세) 학생이 구로오늘신문과 서울오늘신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1년도 '사회봉사대상'을 지난 9월6일 수상했다.



쌍둥이 자매 유진-유선 학생이 야간에 지역 주민들과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에 나선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세번째)

아버지 유인상씨와 어머니 박민씨와 쌍둥이 자녀로서 아버지·어머니의 한·중다문화 봉사단에서 매일 갈꿈이초질서운동, 자율방범대, 코로나19 놀이터지킴이 등 봉사 활동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

두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봉사 활동이 좋아 따라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틈만 나면 호루라기와 신호봉·자율방범대 복장을 착용하고 봉사대에 합류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대원들과 함께

조를 짜서 취약지역인 구로리공원 등에 봉사활동에 나선다.

특히 유진·유선 학생은 근면·성실하고 나눔과 실천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몸에 배어 다문화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누나인 유선 학생은 바이오 연구원이 되어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으며, 동생인 유진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미술 학도가 되어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굳혀 나가겠다고 한다. 한편 한·

[구로구-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하반기 온라인 청소년 교류 참가자 모집

모집대상 구로구 거주 또는 구로구 소재 학교 재학 중인 중 2 ~ 고 2학생(10명)

교류기간 10. 20.(수) ~ 11. 20.(토) / 8회

교류내용 • 1대1 친구연결 ▶ 매주 교류 주제 공지 ▶ 주제 관련 영상(2개) 녹화·공유 / 실시간 교류
• 매주 영어 및 한국어 각 1회 이상 사용 ▶ 상호 언어 및 문화 교류

교류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류(Zoom 또는 구글 미트)
- 영상 녹화 및 공유(패드렛 사용)

신청기간 9. 13.(월) ~ 9. 24.(금)

신청방법 이메일(jwkang57@guro.go.kr) 신청
※ 신청서는 구로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고

문의 대외정책담당관 02-860-3417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하세요”

현관 앞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한 CCTV·비상벨 설치 지원

30일까지 구청 여성정책과 접수

구로구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을 받는다. 구는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에이티캡스와 협력해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안심 도어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동작 감지센서가 내장된 CCTV가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을 전송해 준다. 이용자는 앱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음성 대



구로구가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화도 나눌 수 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티캡스 대원이 신속히 출동한다. 이용자가 직접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 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구로구민 중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 120명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이는 이달 30일까지 구청 여성정책과 이메일(dbswd21@gu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시중가의 절반가량인 월 9900원(시중가 월 1만8750원)으로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구로구가 8900원을 보조해 이용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구청 여성정책과 860-2843.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름달과 송편이다. 요즈음은 송편을 보름달처럼 둥글게 만들기도 하다. 실제로 추석을 명절로 치는 나라의 떡은 모두 보름달을 닮았다.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에 보름달을 닮은 월병을 먹는 다. 이름 자체도 달떡이라는 뜻의 월병(月餅)이다. 일본은 음력 추석이 없지만

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나무와 식물들이 피톤치드를 뿜어 내기 때문이다. 모든 식물은 살균 물질이 있는 피톤치드는 내뿜어서 자기를 보호한다. 피톤치드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송편의 유래 ①

전통 추석 음식으로 쓰키미탕코(月見團子)를 먹는다. 이름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달을 보며 먹는 둥근 떡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먹는 송편(松餅)은 솔잎으로 찐 떡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을 솔잎 때 솔잎을 뿌리는 것은 조상의 놀라운 지혜다. 솔잎에는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성분이 다른 나무 보다 10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 피톤치드는 쉽게 말해서 식물이 다른 미생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향이다.

삼림욕을 하면 온 몸이 가벼

죽이고 인간에게 해로운 병원균을 없애준다. 즉, 송편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솔잎으로 찐 것이다.

보름날에 먹는 떡인데도 왜 보름달과 전혀 닮지도 않은 모양이고, 이름조차도 달하고 관련이 없을까, 하는 점에 의문을 품을 것이다.

송편은 전통적으로 추석에 먹는 떡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추석 때보다 다른 명절에 송편을 먹는 경우가 더 많았다. 추석에 송편을 빚어 먹는다는 기록은 주로 근대 문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본지 회장>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튜브 채널 통해... 기념사·축사 영상·표창 수여·명사특강 등

구로구가 지난 7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이성 구청장, 김한기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동용 구로구의회 의장, 이인영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

원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사의 일상을 다룬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마음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박상미 심리상담가의 명사특강도 펼쳐졌다. <김유권 기자>

I·SEŌUL·U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구로구**

1인가구 주거안전이 걱정이라면?
안전 도어지킴이

도어카메라 긴급출동 서비스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월 1,000원
→ 추후 2년간 본인부담금 월 9,900원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지원대상 성별 무관! 연령 무관! 서울시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OK!
만 18세 이상 서울시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 / 임차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9. 6. ~ 예산 소진시까지
재출방법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및 자치구홈페이지 ※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하여 각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문의 담당자 : 구로구청여성정책과 (02-860-2843)

I·SEŌUL·U

신청하세요!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구로구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신청대상 전월세 주택 거주 여성 1인가구, 법정 한부모 또는 미혼모 가족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 제외)

해당지역 구로구

신청기준 신청가구 중 현장실사, 선정심의 통해 선정

신청기간 2021. 8. 2 (월) ~ 2021. 8. 31 (화)

신청방법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구성품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문의 구청 여성정책과 (02 - 860 - 2838)

서울특별시 **구로구**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명단

Table with 6 columns: 구분, 명칭, 전화번호, 주소, 9-18(토), 9-19(일), 9-20(월), 9-21(화), 9-22(수). Rows include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categories.

Table with 6 columns: 구분, 명칭, 전화번호, 주소, 9-18(토), 9-19(일), 9-20(월), 9-21(화), 9-22(수). Rows include 약국 categories.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또 급증세

중국동포 건설근로자 등 1주일새 300여명 늘어 누적 3,451명

서울 확진자 8만8,364명-사망자 612명

전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석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에서도 중국 동포 건설근로자의 신규 확진자 급증해 누적 확진자가 3,451명을 기록하고 있다.

17일 현재 관내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300여명이 늘어나 누적 3,45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일 41명, 9일 53명, 10일 38명, 11일 36명, 12일 28명, 13일 40명 14일 56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300여명이 늘어나 17일 현재 누적



수도권 등 전국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누적 확진자가 15일 0시 현재 일주일 전에 비해 300여명이 늘어나 누적 3,451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

3,451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평균 42명 꼴이다. 사망자는 16명으로 전주 비해 1명 늘었고 2,670명이 완치 퇴원, 702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1,160명, 해외입국자 308명 등 모두 1,468명이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7일 현재 모두 8만8,364명으로 사망자는 612명이다. <채홍길 기자>

美페어팩스카운티 온라인 청소년 교류 참여자 모집

관내 재학 중2~고2 대상 ... 24일까지 이메일 접수

구로구가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온라인 청소년 교류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현지 국제 교류가 어려워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3일부터 2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jwkwang57@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내달 초 최종 참여 학생을 선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문의) 구청 대외정책담당관 860-3417. <채홍길 기자>

구로구민대회 10대 주민요구안 발표 및 1만 주민투표 시작 선포 기자회견 열어

구로구민대회 10대 주민요구안 발표 및 1만 주민투표 시작 선포 기자회견이 지난 14일 오전



구로구민대회 10대 주민요구안 발표 및 1만 주민투표 시작 선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1시30분 구청 앞 광장에서 구로구민대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구로구민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이 유선희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과 이근미 구로여성회 대표가 구로구민대회 조직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와 10대 주민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10대 주민요구안의 각 단체 대표가 요구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만 주민투표와 10월30일 주민대회 성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다.

구로구민대회 조직위원회의 10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구로1동 도서관 건립 ▲수영장 등 운동시설 확대 및 문화체육 시설-종합복지관 확대 ▲재난지원금 전 주민 지급 ▲마을돌봄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확대 ▲요양보

호사 등 돌봄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비 지급 ▲아이스팩, 유유패 설치 등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 지원 ▲돌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확대 ▲낯은 전철 역사 개선 및 역 공간을 쉼터 공간으로 재조성 ▲느린 학습자 교육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구로구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민 1만명을 목표로 10대 요구안 투표를 실시하고 10월 30일(토) 구로구민대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한편 구로구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구로여성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금상·은상 수상

구로구가 '2021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을 배출했다.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지난 7일 개최된 이번 대회 본

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을 거친 370여명의 참가자들이 디지털 서비스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

구로구는 7명이 참가해 2명이 수상했다. 박길남 씨(79·남)가 고령층 1부(만 75세 이상)에서 금상을, 김선우 씨(43·여)가 장애인(지체)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김유권 기자>

주민 1차 백신접종률 66.9%

28만3,987명 접종... 2차도 16만3,498명 마쳐 38.5%

백신 부작용 신고도 늘어 사망 6건 등 누적 1,439건

구로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인구 대비 접종률이 17일 0시 기준 1차 66.9%, 2차(접종 완료) 38.5%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구로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8만3,987명으로, 관내 전체 인구 내·외국인 포함 42만4,582

명(2021년 6월 기준)의 66.9%에 해당한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안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 치에 모두 반영된다.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6만3,498명이다. 이는 인구 대비 38.5%다.

서울시 평균은 1차 67.4%와 2차

39.9%다.

이와 함께 접종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사망 6건 포함 1,439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1,439건을 증상별로 보면 17일 현재 △사망자가 지난주에 비해 1명 늘어 6건 △아나필락시스 10건 △기타 9건 △경미 증상 1,414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 2021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스마트기술·혁신성 우수·스마트도시 체계와 인프라 등 갖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구로구가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중소도시 부문에서 2021년도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받았다. (사진은 이성 구청장과 스마트 관련과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구가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중소도시 부문에서 2021년도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 받았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진단해 우수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지표 기반의 인증제다. 시상

식은 지난 10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량 및 정성지표를 통해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구로구는 스마트기술, 혁신성이 우수하고 스마트도시로서의 추진 체계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시설

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공감e구로 리빙랩'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에서도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사업을 통합운영센터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갖췄다. 통합플랫폼은 112·119 긴급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선제적,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5월 31일 구로구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가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협의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구로구는 스마트도시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 브랜드 로고도 '디지털 구로'에서 '스마트 구로'로 변경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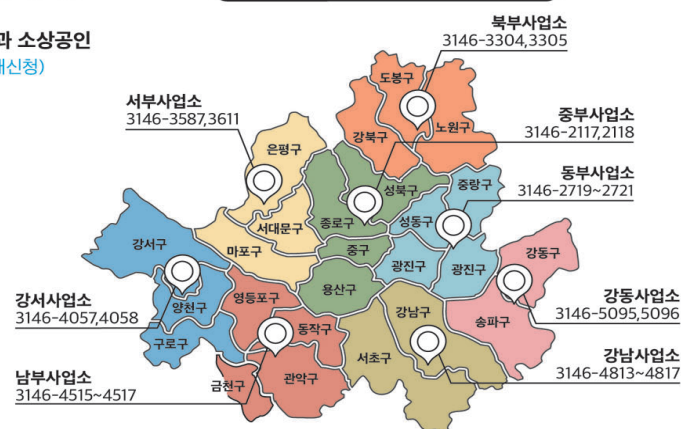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대상** - 일반용, 옥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m³ 이하 사용수전
※ 감면제외 :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
- 감면금액** - '21. 7월 ~ 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자동감면 대상** - '20. 6월 ~ '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m³ 이하 수전
- '21. 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m³ 이하 수전
※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21.6.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 감면신청 대상** - 300m³('20.6월~'21.5월납기 월평균 사용량)초과 사용 일반·옥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m³ 초과 소상공인
※ 1회 신청으로 '21.12월납기까지 적용 (단, 점포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시 재신청)
- 기간** - '21.7.1 ~ '22.3.31 (기간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 '22.4.1. 이후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 (사업장 개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 서류**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 가능

사업소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연락처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 사랑의열매 구로구